

2006년도 춘계 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창립 30주년을 맞는 2006년도 본 학회의 춘계 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4월 6~7일 양일간 일산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봄기운이 완연한 화창한 날씨 속에 예년보다 수백 명이 더 많은 1,620 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상암고분자상 수상자이신 한양대학교 임승순 교수님의 수상기념강연과 서울대학교 윤도영 교수님의 기조강연을 비롯하여, 초청강연 49편, 일반구두발표 71편, 포스터발표 686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학회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는데, (주)삼성토탈에서 협찬하는 삼성고분자학술상을 포항공과대학교의 김진곤 교수님이 수상하셨으며, LG화학의 장석기 박사님이 기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우수학위논문상은 연세대학교의 유자형 박사님과 부경대학교의 황하수 박사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이번 춘계 연구논문발표회에서는 6분야의 특별심포지엄(“기능성고분자 나노재료”, “고분자 미세유변학 및 응용”, “조직공학용 다공성 고분자 지지체”, “광/전기능 고분자-바이오 융합기술”, “의료용 고분자”, “분자전자”)을 개최하여 회원님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이러한 특별심포지엄을 중심으로 한 학술회의 진행형식이 한층 더 정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특별심포지엄이 보다 더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특별심포지엄 구성 및 준비에 대한 학회의 아끼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논문 발표회에서 심포지엄을 조직하여 주신 특별심포지엄 조직책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두 연구논문 발표회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부 일반발표분야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하나의 세션으로 편성되지 못할 정도로 논문발표의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연구논문발표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발표분야의 조정/개선이 다소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포스터 연구논문 발표는 6일(목) 오전과 7일(금) 오전 및 오후, 총 3회에 걸쳐 총 68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일정상의 문제로 논문 편수에 비하여 발표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발표논문을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펴보는 데 제약이 있었고 회원님들의 참여 열기와 관심을 최대한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포스터 발표시간의 이러한 제약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춘계 발표회에서도 포스터 게시시간을 연장하여 구두발표 시간 중에도 시행하였는데, 포스터 발표 및 게시에 대한 홍보와 포스터 발표자들의 인식 확대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보다 많은 발표자들께서 포스터 게시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발표회에서는 이러한 포스터 발표 및 게시시간의 준수가 정착되어 보다 충실한 논문발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논문발표의 참가 등록을 독려하고 보다 바람직한 학술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시한 포스터 발표장에서의 불가피한 통제(?)에 대하여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춘계연구논문 발표회에서도 우수포스터상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8편의 논문이 우수포스터상에 응모하였는데, 이 중에서 본 학회 학술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7편의 논문을 우수포스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수포스터상 응모 논문 수가 작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는 등 기대했던 것보다는 우수포스터상 응모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아직은 다소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포스터상은 본 학회에서 발표되는 포스터 논문의 수준을 더욱 더 높이며 학생회원들에게 연구에 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학생회원들께서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자긍심과 도전 의식을 가지시고 차후 학술회의부터는 우수포스터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회원님들께서는 학생회원들에게 이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와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학회에서도 우수포스터상에 대한 학회 차원의 홍보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 기기전시에는 총 11개 회사가 참여하였는데, 기기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시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하여 최상의 전시부스를 준비하고 쾌적하고 넓은 전시 공간을 참여 업체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학회의 기기전시 준비 및 운영에 대하여 참여한 기기전시 업체들은 큰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향후 본 학회 기기전시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다른 기업체들에게 홍보를 표방하는 등 이번 기기전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업체들이 앞으로의 본 학회 기기전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학회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기전시에서도 회원들의 기기전시장의 방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경품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7일 학술대회의 모든 논문발표가 종료된 늦은 오후에 35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시종 화기애애하면서 동시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PMP 1개, MP3플레이어 3개 등 총 20개의 경품에 대한 추첨이 실시되었는데, 그 중 20명의 행운의 학생회원들은 이들 상품을 차지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학술대회 전날인 4월 5일(수)에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중회의실에서 “제3회 고분자신기술강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신기술강좌에서는 “유기반도체 기술”과 “의료용고분자의 생체 적용” 두 분야의 강좌가 진행되었는데, 각각 75명, 55명이 참석하여 회원들의 좋은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고분자신기술강좌가 좋은 결실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좌를 기획, 준비하고 연사를 초빙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신 분자전자 부문위원회의 김장주 위원장님과 최동훈 총무이사님, 의료용고분자부문위원회의 박태관 위원장님과 한동근 총무이사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열강을 해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학회 창립 30주년에 개최하게 되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이번 연구논문발표회 및 총회는 예년에 비하여 수백 명이 증가한 1,620여명의 회원님들께서 학술대회를 등록, 참여하시어 참석인원 면에서 역대 최대의 규모를 자랑했으며, 이러한 예상

치 못한 등록 회원의 급증으로 인하여 1,500개씩 준비한 초록과 기념품이 모두 떨어져 일부 회원님들께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록집과 기념품을 학술대회 현장에서 받지 못하신 회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해당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회원등록 면에서 뿐만 아니라 구두발표, 포스터 발표, 총회, 기기전시 등 모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발표논문의 양과 질도 국제학회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학회 참가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의 다른 전시일정과 겹침으로 인하여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예년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겨져서 개최되었지만, 혼잡한 대규모의 전시일정과 중복되는 것을 피함으로써 우수한 학회장 시설 및 부대시설, 쾌적하고 넓은 학회장 및 주변 환경 등을 본 학회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회원 모두의 관심과 열기를 충분히 담으면서도 한층 여유롭게 학술대회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이번 학술대회가 대대적인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하며 참여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춘계 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위하여 무한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봉식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 여러분과 학술대회의 모든 준비와 진행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김정안 전무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을 담당해 주신 본 학회의 운영이사 여러분과 학회 사무국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결실있게 마무리되고 앞으로 본 학회 및 학술대회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본 학술대회에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들과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며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분자학회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술이사 백상현>

